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는 주인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
즐거움이 항상 따르리.
-법구비유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시왕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에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0090)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5월 31일 수요일(주간) 제 272 호

산사 여름 단기출가 '테마 다양'

태교·효·위빠사나·염불수련 등
연령-성-직업별 프로그램 세분화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를 비롯 전국의 많은 사찰들이 여름수련회 일정을 확정하고 참가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 여름에는 태교, 효, 위빠사나, 염불수련 등 특화된 주제로 진행하는 수련회가 늘어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표 참조〉

여름 휴가를 단기출가수련회로 대신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년 모집인원의 2~3배 넘는 신청자를 맞았던 사찰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련생을 받을 방침이다. 접수 순서만을 고려해 무작위로 입소시키던 것을 신청자의 참가 목적과 사찰의 수련회 개최 취지에 부합하는 희망자를 선별한다. 주최측은 프로그램 진행을 용이하게 하고, 참가자들은 '더 큰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수련회 참가 희망자들은 신청하기 전에 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으로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는 주관 사찰의 수련대회 프로그램 성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사찰수련회는 초심자에게는 발우공양, 결가부좌의 좌선, 예불 등이 육체적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 때문에 사찰 수련프로그램이 자신의 수행수준과 맞는지 수련경험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수련회 유경험자라면 수련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마다 신청자 반수 이상을 탈락시켜야 할만큼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송광사는 7월9일~ 8월10일 5차에 걸쳐 실시한다.

해인사는 1080배, 독경, 사경수행을 주된 내용으로 수련대회 참가자들이 일상에 돌아가서도 수행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놓고 있어 초심자들이 도전해 봄직하다. 참가자격을 19세에서 50세로 한정한 해남 대둔사는 참선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보성 대원사는 7월30일~8월5일 1주일간 위빠사나 전문수련회를, 경주 골굴사는 선무도 수련회를 실시한다. 또 용주사는 부모와 2인1조로 참여하는 효사상실천수련회(7월), 과계사는 여름태교수련회(7월 초부터 8월말까지), 정토사 만일염불수련회(6월6일~10월22일), 천축사는 무문관 체험 수련회를 연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7월초 '수련회 정보센터'를 개설하고 수련회 일정 및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02)720-7060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주요 사찰 여름수련회 예정표

사 찰	기 간	접수마감	연 락 처
대둔사	7. 10~8. 4일(6회)	6. 30	0634)534-6602
대원사	7. 30~8. 5(1회),주말	7. 27	0694)852-1755
해인사	6. 24~8. 9(7회)	시작 3일 전	0599)931-1003
백양사	7. 15~8. 26(4회)	6. 25	0685)392-7502
송광사	7. 9~8. 10일(5회)	6. 10	0661)755-9002
관계사	7. 27일~8. 2일(3회)	6. 30	0595)863-1901
금산사	6. 30일~8. 15일(5회)	상시순	0658)548-4441
직지사	7. 21일~8. 6일(4회)	6. 30	0547)436-6174
통도사	7. 15~8. 8(6회)	6. 30	0523)382-7182
과계사	7월 초 (주말이용)	매주 금요일	053)984-4550
골굴사	수시(희망일 지정 가능)	시작 3일 전	0561)744-1689
정토사	6. 6~10. 22	6. 5	0342)723-9797
천축사	매주 토~일요일	시작 3일 전	02)904-1474

민족공동체 본부 6월8일 출범

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사업을 전담할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다음 달 8일 결성된다. 추진본부는 △남북불교교류 △통일종책 연구·수립 △통일기금 조성 △북한 불교현황 및 문화재 조사·연구 △법회 등을 통한 대중실천활동 △대북 지원활동 등을 펼친다.

추진본부 준비위는 18일 조직구성과 관련, 총재·고문·본부장·집행위원회·사무처(총무국 조직국 기획홍보국)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총재에는 총무원장 정대스님, 본부장에는 포교원장 정련스님, 공동집행위원장에 명진(상임)·양산스님(사회부장), 사무처장에 도각스님을 선임했다. 정성운 기자

봉정사 목조불 "국내 最古"

'승안 4년=1199년' 조성연대 확인

경북 안동 봉정사(주지 문인)에서 국내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국보급 목조 관음보살상이 발견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봉정사 측은 덕휘루에 걸려있는 '대웅전관음개금현판'에서, 봉정사 목조 관음상의 조성연대가 승안 4년(1199년·고려 신종 2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조암 관음상의 복장 유물을 조사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는 원서(願書)가 나왔다고 밝혔다. 관음상은 높이15cm 가로63cm 세로57cm 크기로 원만한 상호와 화려한 복장이 돋보이며, 보존상태가 양호해 국보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동 봉정사 지조암 목조 관음상. 최근 '대웅전 관음개금현판'을 통해 관음상의 조성연대가 승안 4년(1199년)으로 밝혀져 국내 최고(最古)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명대(동국대) 교수는 "관음상은 14세기에서 15세기 초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현판 역시 18세기에 쓴 것"이라며 "복장물을 연구한 후 '최고(最古)에 대한 판단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존 최고 목불은 1274년 제작된 서울 개운사의 아미타불이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참여연대 '문화재 관람료 반환 소송'

조계종 특별대책위 구성 '대응'

참여연대의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과 관련, 조계종총무원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25일 불교회관에서 비공개로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 연석회의를 갖고 총무원집행부와 관람료위원, 소송 사찰 주지스님을 포함한 9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련기사 3면〉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 주지들은 이날 회의에서 참여연대 소송에 대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촉구했다. 스님들은 "참여연대에서 소송을 제기해 마치 사찰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주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이었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 시비 소지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18일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국립공원에 입장할 목적으로 천은사 근처를 지나쳤을뿐 천은사 경내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었으며, 관람하지도 않았는데도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환경부장관 앞으로 의견서를 보내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합동징수의 폐지를 요구했다. 정성운 기자

"상업시설지구내 석남사 소유 토지 경내지 아니다"

울산지원 판결 '파문'

사찰소유 토지라도 수행 등에 필요불가결한 토지가 아닐 경우는 전사법에서 규정한 경내지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유권해석이 나와 조계종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지법 행정부 박창현 판사는 10일 최모씨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석남사 앞 상업시설지구 작업중지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에서 "상업시설지구에 속한 석남사 소유 토지는 수행 등에 필요불가결한 토지라고 할 수 없어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경내지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울주군의 작업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에 경내지를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외환은행 : 189-13-03929-3 국민은행 : 827-25-0020-943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농 협 :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불자님들이 내시는 구독료
'불국토'로 가꾸는 밑거름
▶편리한 자동이체를 이용하십시오.
▶자동이체 문의 전화 (02)737-0090

buddhanews.com
붓다뉴스 닷컴
교계 첫 日刊 사이버불교신문
6월1일 오픈합니다

불교계 정보화를 선도해온 현대불교신문은 6월1일부터 연중무휴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불교뉴스 전문사이트 붓다뉴스 닷 컴(www.buddhanews.com)을 선보입니다.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는 그동안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가 서비스해온 인터넷신문을 불교뉴스 전문사이트로 확대 개편하면서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한 교계 최초의 일간 사이버신문입니다.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는 교계의 뉴스를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교계 최대규모로 구축된 불교DB '부다피아'와의 연계 검색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의 강점인 정보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쌍방향 교신도 가능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불교 DB검색 가능
쌍방향 정보교류

매일매일 서비스되는 '붓다뉴스'는 기존의 종이매체 현대불교신문에서 제공하는 그날의 종합뉴스와 불교강좌·학술문화·교육·신행·생활정보등 전영역에 걸쳐 기자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존신문이 지면 제약으로 싣지 못했던 기사를 모두 볼 수 있고 각종 부가정보와 심층분석기사 등 다양하고 품격높은 정보와 만나게 됩니다.

특히 기획특집기사, 해외불교, 최신불교정보, 사이트 여행에서는 산사 큰스님들의 사자후인 감로수 같은 법문과 1600년 전통의 한국불교문화, 21세기 새문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 관련자료와 국내외 불교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실, 생명나눔캠페인, 부다카페, 컬럼, 돌부처찾기는 특화된 서비스로, 클릭 사이버뉴스부장·나도한마디·콤앗이등 10여개의 대화창은 쌍방향 정보교류의 장으로 독자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신문제작에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교계 최초로 선보이는 '붓다뉴스'에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 CELLULOSE FIBER SPONGE · CELLULOSE FIBER SPONGE ·

GREEN SPONGE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님들의 벗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방일.
잘 닦이고 위생적인 GREEN SPONGE가 해결합니다.
환경오염이 걱정없는 GREEN SPONGE!
주방의 역사를 바꿉니다.

- 다양하고 경제적인 생활용품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 구입하실 땐 만족을, 다쓰고 버릴 땐 흐뭇함을 느끼보십시오.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양질의 제품만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린 셀룰로즈파이버 스폰지의 특성

- 환경오염을 막아줍니다.
  쓰고 버린 후에도 100% 분해되므로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습니다.
-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강한 흡수력이 물이나 오물 등을 빠르게 흡수하여 흠집을 남기지 않습니다.
- 위생적입니다.
  물에 삶아 소독할 수 있으며 건조가 빨라 여름철에도 위생적입니다.
- 부드럽고 탄력이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뛰어난 탄력성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 적은 양의 세제로도 충분합니다
  천연펄프를 사용한 부드러운 재질로써 소량의 세제로도 충분한 거품이 생깁니다.

그린 스폰지 GT-001(사각형)
규격 85×13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냄비고, 조리기구, 자동차 등 세척시
특성 뛰어난 흡수력과 밀착력으로 잘 닦이며 삶아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그린 스폰지 GT-002(타원형)
규격 90×120mm
용도 식기, 조리기구, 싱크대, 코팅제품 등 세척시
특성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 오래 사용해도 위생적입니다

그린 수세미 GT-003(사각형)
규격 75×11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냄비고 및 그밖의 물기 제거시
특성 천연스폰지와 수세미의 이중구조로 흡수력, 밀착력이 뛰어납니다 잘 닦이고 건조가 빨라 위생적입니다.

그린 목욕 스폰지 GT-004
용도 목욕시
특성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 어른뿐만 아니라 아기 목욕시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린 화장 스폰지 GT-005
용도 화장시
특성 부드럽고 밀착성이 뛰어나 화장이 잘 먹습니다

그린 병 스폰지 GT-006
용도 좁은 유리진, 물통, 아기 우유병 등 세척시
특성 편리한 손잡이와 뛰어난 흡수력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그린 거품 스폰지 GT-007
용도 식기, 조리기구, 유리그릇 등 세척시
특성 세제를 담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스폰지와 접촉되는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어 적당량의 세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린 압착 스폰지 GT-008
용도 자동차, 주방기구, 유리 등 세척시, 아기 및 성인 목욕시
특성 약간의 물기만 닿아도 잘 젖지고 원하는 내용, 색상 인쇄가 가능해 판촉물로 적당하며 부드럽고 거품이 잘 일어 세제가 절약됩니다.

GREEN TEX는 환경만족, 고객만족을 약속합니다. 저희 그린텍스는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환경을 만족시키며 품질향상에 매진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21세기 환경을 이끌어가는 기업! 저희 그린텍스의 이념입니다.

주식회사 그린텍스
GREEN TEX. CO., LTD.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1동 628-14 정호빌딩 2층 TEL:02-3409-2235(代) FAX:02-3409-2236
■공 장: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02번지 (풍산농공단지) TEL:0571-858-5661(代) FAX:0571-859-3639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어떤 형태나 크기의 스폰지도 가능합니다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